

## 3월 셋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NEWSCAPE** 인도네시아, 전기료 절감 위한 태양광 패널 수요 증가 (p. 1)  
(<http://www.newscap.co.kr/news/view.php?idx=44535>)

**여행신문** [초대석]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리즈키 한다야니 차관보 “발리만큼 매력적인 여행지 다양... 가이드 등 전문 인력 확보도 노력” (p. 2-3)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65>)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인도네시아, 코로나19로 중국산 마늘 수입 비상 (p. 4)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002292024329577c77c103522\\_1](https://www.g-enews.com/view.php?ud=202002292024329577c77c103522_1))

**산업일보** 인니, B30 바이오디젤 의무화..2025년 'B100' 바라본다 (p. 5-6)  
(<http://kidd.co.kr/news/214746>)

## 인도네시아, 전기료 절감 위한 태양광 패널 수요 증가

정석동 기자 기사등록 2020-02-27 16:53:46



인도네시아는 2019년 12.36%의 재생가능 혼합률을 기록, 로드맵의 연간 목표치인 17.5%에 크게 못 미쳤다.(사진=위키피디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기료 절감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특히 옥상 설치형 태양광 패널(rooftop solar panel) 임대업체 PT. Xurya Daya Indonesia의 에카 히마완(Eka Himawan) 관리 이사에 따르면, 전기료 절감에 최대 20%까지 효과가 있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에 설립한 회사 Xurya는 인도네시아의 제조 및 소매업 20개 회사에 옥상 태양광 패널 임대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인도네시아의 옥상 설치형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총 전력은 2019년 12월 기준 4.92 메가와트(Mega Watt) 정도로 고객 수가 1,580여 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지 고객층의 패널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큰 걸림돌이어서 대부분의 수요가 산업계가 아닌 일반 주택인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적극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자원부는 “대부분의 태양 전지판이 주택에 설치되었다. 만약 산업과 기업들도 태양열 집열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재생 에너지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태양열 이용의 증가는 일반 국가 에너지 계획 로드맵에서 규정한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혼합 23%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2.36%의 재생가능 혼합률을 기록, 로드맵의 연간 목표치인 17.5%에 크게 못 미쳤다.

## [초대석]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리즈키 한다야니 차관보 “발리만큼 매력적인 여행지 다양... 가이드 등 전문 인력 확보도 노력”

이성균 기자 승인 2020.03.02 11:22

작년 한국서 8.2% 증가한 38만8,300명 방문  
수마트라·족자카르타·누사텐가라 등 집중홍보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는 2월12일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센터와 만나 상호 교류를 도모했다. 이 자리에서 관광창조경제부 리즈키 한다야니(Rizki Handayani) 차관보를 만나 인도네시아 여행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차관보 리즈키 한다야니 차관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8.2% 증가한 38만8,300명으로 집계됐다”며 “올해는 ‘5 Super Priority Destination’ 계획 아래에서 수마트라, 족자카르타, 누사텐가라, 술라웨시, 라부안 바조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여행 시장을 평가한다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소폭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인바운드 관광객은 2018년 대비 1.9% 증가한 1,611만명으로 집계됐다. 여행 성수기는 7~8월, 비수기는 1월과 11월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보면 말레이시아와 중국, 싱가포르, 호주가 관광객 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 시장의 경우 8.2% 늘어난 38만8,300명을 기록했다. 한국인 관광객의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40만명 돌파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안정적인 성장 가운데 인도네시아 여행의 질도 향상됐는데, 수치로도 입증됐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관광경쟁력(TTCI, Travel&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순위에서 2015년 50위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40위로 10계단 뛰어올랐다.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20~30위권에 진입하는 게 목표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2월27일 기준)가 0명이다.**

정부를 비롯해 지방 자치 단체, 관광창조경제부, 관광업계가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입국객의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월5일부터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중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지방 자치 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들은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관광객을 살피고 있다. 모든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기관은 항공, 선박, 육상 교통 등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관광창조경제부를 비롯해 관광 관련 협회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관광객을 대처할 인적 자원을 준비한 상태다. 여행사 또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인 대상의 인바운드 여행사와 중국행 상품을 파는 여행사들은 정부의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 마케팅과 프로모션 또한 현재는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세계 여행 시장이 위축된 만큼 위기 극복 차원에서의 노력도 동반되고 있다. OTA, 호텔, 신용카드 회사들과 협업해 양질의 인도네시아 여행 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시장 및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는 양질의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주요 전략은 '3A'다. 접근성(Accessibility), 쾌적함(Amenity), 매력(Attraction) 향상에 힘쓰고, 자연, 문화, 스포츠 관광과 MICE 등의 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목적지의 경우 5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5 Super Priority Destination' 계획으로 북부 수마트라의 토바호(Lake Toba)부터 족자카르타의 보로부두르 사원(Borobudur Temple), 서부 누사텐가라의 만달리카(Mandalika), 동부 누사텐가라의 라부안 바조(Labuan Bajo), 북부 술라웨시의 리쿠팡(Likupang)까지 발리 이외의 목적지 알리기에 공을 들인다. 또 가이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에도 신경 쓸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지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 방송, 잡지, SNS 등 다양한 성격의 미디어와 협업할 예정이다. 또 서울역 등에서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랩핑 홍보도 병행한다. 여행사와의 협업도 빠트릴 수 없다. 지난해 모두투어, 내일투어와 함께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행사와 관계를 쌓고,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트래블 마트에도 참여할 것이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mailto:sage@traveltimes.co.kr)

## [글로벌-Biz 24] 인도네시아, 코로나19로 중국산 마늘 수입 비상

임성훈 기자 입력2020-03-02 16:37



코로나19는 인도네시아에서 마늘 파동을 불러오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라마단 기간 중 마늘을 구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조만간 마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월간 마늘 소비량은 4만6000t으로 대부분을 세계 최대의 마늘 수출국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4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마늘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농업부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총 소비량 10만3000t 중 6만2000t의 수입 계약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는 모자란 양이고 적어도 8만t의 물량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732 Access Denied.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19년에만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약 5억5500만 달러, 46만5000t의 마늘을 수입했다. 인도네시아 자국산은 총 소비량의 10% 정도만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안으로 인도 및 태국 등과 같은 나라로 마늘의 수입선을 확대하려고 하나 이 또한 쉽지 않다. 갑작스럽게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국가가 중국 말고는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마늘 가격은 1kg 당 3.35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코로나19의 파괴력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광범위하고도 무서움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ews.com

## 인니, B30 바이오디젤 의무화..2025년 'B100' 바라본다

기사입력 2020-03-03 09:11:14

팜오일 생산 및 수출 세계 1위, 바이오디젤 수출 세계 5위



[산업일보]

인도네시아가 바이오연료를 앞세워 친환경 시대를 향한 행진 대열의 선두에 섰다. 환경보호와 함께 에너지 다양성을 확보하며 석유제품의 수입을 줄여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에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인 '인도네시아 바이오 연료 혼합정책 동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바이오디젤이 30% 함유된 혼합디젤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인 B30을 시행했으며, 2025년에는 B10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바이오연료란 살아있는 유기체 혹은 동물의 배설물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에서 얻어지며, 순식물성 유지 기반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뜻한다. 대표적인 바이오연료로는 에너지 및 연료용 알코올인 바이오에탄올과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바이오디젤의 원재료인 팜오일의 생산 및 수출 강국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량 및 수출 규모는 모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08년경부터 시작된 바이오디젤 정책에 힘입어, 사용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팜오일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 수출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수출 금액순으로 세계 바이오디젤 수출 규모 5위 국가에 들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한국 등이다.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 정책은 2008년 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중이 2.5%인 B2.5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해당 정책은 2010년 B7.5, 2014년 B10, 2016년 B20을 지나 2020년 B30까지 확대 적용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규모와도 큰 연관이 있다. 경유를 포함한 석유 제품이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상위 5대 수출 품목에 해당하기에, 바이오 연료 혼합정책과 석유제품의 시장 수급 및 제품 단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KOTRA의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B100의 보급을 위해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률을 높여가는 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기회를 노리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관련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